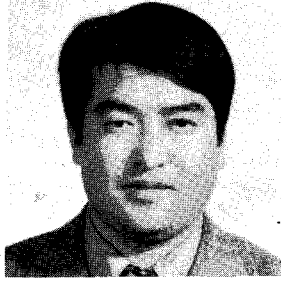


창간 10주년을 맞는

월간 양계에게



김 영 옥
(주)퓨리나코리아 지역부장
월간 양계 초대편집부장

벌써 십년이?

월간 양계지가 창간 10주년이 되었으니, 창간 당시의 애기와 월간양계지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요청을 받고 제가 맨 처음 입에서 튀어나온 애기는 대중가요에 잘 나오는 「아니? 벌써…」하는 것이 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책상위에 놓인 최근 발간된 월간 양계지를 손에잡는 순간 저는 10년의 부피를 손에 느낄수가 있었습니다.

돌아보면지난 10년동안 업계의 발전도 그 량적인 면에서 팔목할만 하였지만 양계잡지의 발전은 눈에 뵈만큼 많이 발전하였습니다. 맨처음 1969년 11월의 창간호가 겨우 본문 광고 합쳐서 약 60페이지로 출발했던것에 비하면, 지금은 잡지의 부피도 240여 페이지에 달하는 국내 굴지의 월간잡지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숫자로 본다면 약 400%로 발전을 하게 된 것이며, 그 질(質)적인 면이나 다양한 내용은 숫자로 따질 수 없을 만큼 많은 발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만큼 양계잡지가 발전하게 된 것은 그 동안 이 잡지를 키워낸 협회의 실무진들의 노고와 잡지가 올바르게 자라도록 도와주신 편집 집필진들, 그리고 업계의 극진한 뒷 받침의 결정체

가 바로 이 양계잡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또 한번 이렇게 제대로 성장할수 있도록 도와주신 초창기의 뒷바라지를 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1969년 10월에 낼 예정이었던...

맨 처음 「월간 양계」지의 발간 계획은 제가 협회(당시 한국 가금협회)에 입사하기 전(1969. 7월)에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협회장을 맡고 계시던 오봉국박사(서울대 교수)께서 협회의 재정을 돕는 사업으로 「육추일지」를 편찬하여 각 부화장에서 고객 서비스용으로 이용하여 나오는 수익금으로 협회의 재원이 크게 힘입은바 있었습니다. 협회에서는 이때의 경험이 이 「월간 양계」지의 발간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1969년 당시 협회의 주 업무는 매월 개최하는 「양계인 기술 세미나」가 가장 큰 지도사업의 하나였습니다. 거기에 원간 기술지를 발행한다는 사업을 년초에 세워 두고 그 준비를 위해 당시 총무과장이시던 이재식씨(현 계유부회장 대표)가 일본에서 발간되는 「鶏の研究」잡지를 중심으로 기사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1969년 7월에 협회에 입사하여 바로 이 잡

지의 발간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우선 가장 문제가 되는 재원의 확보에는 오회장님께서 각 관련 사업체의 중견간부들을 초대해서 사업의 취지와 발간계획을 설명하면서 사업체 광고와 월간지의 배부를 연결하는 잡지로 키울것임을 역설하여 현재와 같은 특수한 배부과정을 가진 잡지가 생겨나게 되었으며, 당시 협회의 이사님들도 발간사업 특별찬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어느정도 첫 호를 낼수 있는 기틀이 마련 되었습니다.

8월중에는 10월에 첫호를 내기로 예정을 잡고 제호 결정, (한국양계나 월간양계) 원고수집과 앞으로 1년간의 편집계획을 하였습니다. 우선 독자층을 어떤 계층으로 생각하는가 하는 문제부터 논의가 되어, 사료공장, 종계장 및 약품회사의 기사급들과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익히려는 양계인들을 50%로 잡고 선진 경영관계를 익히려는 경영주들을 20%정도, 각종 관공서 및 농촌 지도직에 근무하는 독자층을 20%, 그리고 양계업에 처음 투신하는 독자층을 10%로 잡았습니다. 이 독자층은 앞으로의 잡지가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져 나갈것인가 하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초대 편집위원장에 한인규박사(서울대 교수)께서 피선 되었습니다. 초창기의 편집위원들께서는 헌신적으로 잡지의 발간에 힘써 주셨습니다. 편집위원들께서 보내주신 원고는 원고료를 지불하지 않기로 결정하시는 등, 실로 「월간 양계」지의 발전 한 가지에만 정성을 쏟으셨지요. 특히 임 병규위원님(당시 동신부화장전무)과 신정재위원님(당시 한국비타민 헤드쿼터스 영업부장)들은 한 분은 잡지의 본문 내용이 제대로 방향대로 가고 있나를 항상 돌봐 주셨으며, 또 한 분은 광고의 내용이 좀 더 참신하고 다양하게 엮어질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더욱이 위원장이신 한인규박사님께서서는 잡지의 발간전에 반드시 일부러 수원에서 올라 오셔서 잡지를 체크하고 내려갈정도의 열성이 셧으니

이 잡지가 잘못될리가 없었습니다.

또 당시 월간 양계에 광고를 게재해 주신 각 업체들이 거의 다 광고효과를 보기 위해서 광고게재를 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협회에서 하는 사업을 돕는다는 취지아래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특히 군산의 「제일산업」에서는 월간 70,000원이면 상당한 거금이었습니다만 선뜻 1년 계약을 해 주어서 협회로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뒷바침이 되기까지에는 제일산업의 사장님과 이경산공공장님 그리고 당시 대전공장에 계시던 노동덕씨(현 부국사로 전무이사)등의 힘이 컸습니다.

1969년 9월 3일에 문공부에 정기간행물로 등록을 하고 그 해 11월에 창간을 보게 되었습니다. 창간호가 나온 후의 업계의 반응은 매우 호의적이었으며, 무척 고무적이었습니다. 당시 회장이며 발행인이시던 오봉국박사는 창간사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중략, 월간 양계지는, 첫째 국, 내, 외의 새로운 기술 및 지식을 소개하여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둘째로 양계인의 의사나 건의를 정부에 건의하며 시책에 반영시킴으로서 양계인을 위한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하며, 셋째 시장의 움직임을 양계인에게 전달하여 양계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여기서에 일부러 창간사를 인용한 것은 이 창간사가 당시뿐 아니라 앞으로도 월간양계지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길잡이가 될과 동시에 잡지의 창간과 동시에 발행인독자들에게 한 약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농림부 축산국장이시던 오준석씨는 창간호 축사에서

「첫째 이제까지의 한국 농업부문의 잡지는 향상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몇 번 시도해 보다가 중도에서 그만두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월간양계지는 비록 기술지가 자리잡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풍토이지만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더욱 발전해 주었으면 싶다, 둘째,

잡지 발간을 계기로 새로운 기술및 응용과학의 도입을 맡아주는 선두주자가 되어 주으면 한다」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더구나 창간호에서는 우리 축산업계의 원로이신 윤상원선생님의 회고담을 실을 수 있어서 참으로 큰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 창간호의 준비는 광고및 섭외를 당시 이 재식 총무과장이, 편집은 제가 맡아서 주간에는 사람을 만나서 원고를 수집하고 야간에는 협회의 사무실에서 자면서 원고정리와 레이아웃을 하며, 교정은 당시 경리를 맡고 있던 차 묘순씨가 맡아 주었습니다. 협회의 총 직원이 전부 합해서 3명이었으니 협회의 사무직원 총 동원 전력투구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보람을 느낄수 있었던 것은 부회장직을 맡고 계시던 박도현사장님(당시 동신중축장)과 상무직을 맡고 계시던 최창해교수님(당시 시립 농업대학)의 따뜻한 배려가 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건국대학에 재학중이며 대학주재원이었던 김호섭씨와 정용화씨, 장지중씨등은 한창 바쁠때면 교정을 도와 주던 고마운 분들이었습니다.

12월호를 내고 나서는 당시 향문사에서 근무하던 심동욱씨가 새로이 입사를 하면서 교정및 인쇄소일이 한결쉬워 졌습니다. 아마 1월호부터는 오자가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당시에는 활판인쇄였으니 그 인쇄 과정이 대단히 복잡했습니다. 더구나 1월호부터는 「월간양계」제호를 서울농대 윤석봉교수님께서 써 주셔서 완전히 월간 양계지의 제호로 굳어졌으며 오봉국박사께서 소장하고 계시던 세계의 닭 품종사진을 표지에 게재함으로서 항상 가장 큰 걱정이었던 표지사진에 대한 근심이 싹 가시게 되었다. 1월호는 창간호의 5,500부, 12월호의 6,000부에 이어 매월 500부씩 증가되어 6,500부를 발행하였다.

참고로 1969년의 양계업계를 잠깐 돌이켜 보면, 계란 1 개가격 : 10원(대란) 병아리 1 수가격 120원(도입계) 60원(국산계), 육성계 1 수육성비 : 525원, 1969년도 배합사료 생산

량(월 평균) 23,000M/T, 사료가격 : (₩/kg 당) 초생추 38원, 부로일러 40~41원, 산란계 32원, 등이며 부로일러는 kg당 200원, 노계도태계는 190원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의 사랑방과 같은 협회사무실

이와 같이 잡지가 만들어 지는 도중에 새로이 입사하게 된 이정우씨, 유상철씨(현 대한사이로 부장) 신정일씨(현 유일농원 부장) 김정인씨(현 신촌 사료 상무)등이 보강되면서 협회의 사무실은 그야말로 젊은 혈기가 가득한 의욕의 집단 같았습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 사무실이나 큰 회사와 같은 체계나 질서 등은 없었던 점도 있었지만 더 좋은 잡지를 만들겠다는 의욕과 정열은 대단했어요. 각종에 있는 젊은 기사들이 거의 다 도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월간 25,000원씩 받던 제 봉급은 매달 타 갈게 없을뿐 아니라 노상 가불로 연속해서 당시의 경리였던 미쓰 차에게 눈총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총각때였으니까 이런 생활이 가능 했겠지요) 그때의 잡지를 펼쳐보면 이것 저것 체계는 안 잡혔지만, 세련되지못한채로 시도 해 봤던 여러 흔적들이 눈에 띄어서 대견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곤 합니다.

「월간 양계」는 꼭 이런 일들을...

월간양계의 창간 십주년호에 제언을 하는 것도 (한 독자의 입장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나쁘지 않으리라 싶은 생각이 들어 몇자 말씀드릴가 싶습니다.

첫째 창간사에서 밝혔던 세가지 창간의의(創刊意義)를 과연 충실히 지켜 나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다. 국내외의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는데 있어서 인원, 시야의 부족등으로 인해서 소홀히 한 적은 없었던가를 뒤 돌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고정된 집필진에 의하여 잡지가 엮어지다 보니, 사양관리하면 아무개, 질병 문제하면 누구 누구라

는 식으로 몇 사람의 집필진 구성에 의하여 제한된 기술제공만을 받고 있는것은 아닌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둘째는 양계인을 위한 정책 수립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데 월간양계지를 충분히 활용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끔씩은 「월간양계」에서 물론 협회에서 발행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관료적인, 그래서 공공단체의 기관지 같은 인상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협회의 홍보사항을 클로즈업 시킬뿐만 아니라 현장도 충분히 클로즈업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세번째의 빠른 시장정보로 양계경영에 도움을 주는것이 워낙 통계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았던 이 분야에서 현재 하나씩 통계를 만들고 있는 것이니 만큼 앞으로의「월간양계」의 커다란 사명이 될 것입니다. 단지 이 통계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를 좀 더 알려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낫아지는 생산기반조성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 양계의 역사는 아마 「월간양계」와 같이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즉 양계업 자체에 의한 기업은 1969년경부터라 얘기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10년동안에 양계업의 외형적인 생산능력이나 물량은 대단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꺼풀 벗기고 보면, 내용면에서 과연 생산성의, 향상, 질이나, 수준의 향상등이 이루어 졌었는가에 들어가면, 그 량적인 발전에 비하면 대단히 회의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발전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우리나라의 양계산업이니만큼, 웬만한 태풍에도 끄떡하지 않을 우리의

산업기반을 위한 뿌리를 내리는 작업을 저는 「월간양계」에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양계산업의 기반이 전실한 중견 양계인들이 그 저변이 되어 있다면 아마 우리 양계는 그 질적인, 혹은 량적인 면에서 착실한 성장을 해 나갈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헛배만 불리는 식으로 숫자만 확대시켜 나가는 식이 된다면 그 결과는 뻔 합니다.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 양계업을 생업으로 삼고 어떻게 하면 더욱 생산성을 올릴 수 있을까 하는 문제로 고심을 하고 있는 많은 양계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매년 노력을 경주하는 만큼 발전 할수 있는 기업풍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흔히들 정책적인 보호니, 육성책이니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부분은 그것이 당국에서 보호를 해야 하는 보호산업인것으로 오해(?) 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국에서도 꼭 숫자적으로 증산되어야만 발전된 것으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젠 그 차원은 좀 벗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산업의 발전과정에서 규제, 보호등은 첫 단계에서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단계가 되면 자율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국제 무대에서 한번 경쟁 해 봐라! 하는 식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에 비해서, 미국에 비해서 생산원가가 더 먹힌다. 원인이 어디 있는가—그것을 해결하도록 여러면에서 도와주는 정책, 그것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양계기업의 자세, 그런 기반이 조성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월간 양계잡지의 분위기 조성 등이 바로 량(量)적인 면과 같이 성장하는 우리의 질(質)적인 수준 향상 아니겠습니까? 대한양계협회의 발전도, 맨 처음, 발전해 나가는 지식과 기술을 구하는 양계경영자들과 학자들의 결합에서 생겨난 단체였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았고, 빠른 속도로 발전은 하지 못하지만 탄탄하고 안전하게 발전해 나갈수 있었던게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

합니다.

잡문을 마치면서

너무 쓸데없는 얘기가 가까운 지면을 많이 뺐지 않았나 걱정이 됩니다. 이번에 다행히 「10년후의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까」 하는 의제아래 「월간 양계」지에서 원고 모집을 하고 있어서 대단히 고마운 일이나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여러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10년후의 G. N. P는?」 「10년후의

계란소비량은?」 「10년후의 양계 숫자는?」 「10년후의 사료효율은?」...등등이 마구 머리에서 지나가고 했습니다. 우리가 10년후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의 제기는 대단히 시기적절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지난 10년전을 생각하면서 당시 여러가지로 도와 주셨던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축산국장이셨던 오국장님의 축사에서 부탁이 기우가 되었던것 역시 대단히 큰 기쁨이었습니다.

제 6 차 구라파가금학회 개최안내

1. 때 : 1980년 9월 8일~12일

2. 장 소 : 서독 Hamburg

3. 행사안내 :

가. 학술발표 분야

- 1) Breeding and Reproduction
- 2) Feeding and Nutrition
- 3) Husbandry, Management, Behaviour, Physiology
- 4) Hygiene
- 5) Poultry Products
- 6) Turkeys, Ducks, Geese and other Fowl
- 7) Economics and Marketing

그외 유전및 경영, 유통, 영양, 가금질병 분야에서 세계유명학자들 초빙 강연예정.

나. 견학 및 관광 기타 문화행사

- 1) 독일의 실험, 연구기관, 가금육종농장, 가공업체 단체 견학 (1980년 9월 10일 예정)
- 2) 독일의 Hannover에서 개최예정인 세계 농업 박람회(1980년 9월 12일~13일) 참석 가능
- 3) Hamburg 근교의 박물관, 동물원, 보트여행 등 가능.

※ 기타 참가자격이나 소요 경비등 자세한 사항은 세계가금학회 한국지부 수석이사 박근식계역과장(안양 2153 가축위생연구소)께 문의할 것.